

광주시, 국비 끊긴 트라우마센터 출연기관 전환

TF 소위원회, 전문성·효율성 고려 법인 설립 운영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제한' 정부 방침은 걸림돌

광주시가 국비지원이 끊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 운영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출연기관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센터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영이나 위탁 방안에 검토했으나 사업 추진 효율성이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연기관으로 전환이 합리적이라고 소위원회는 결론내렸다. TF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TF에는 광주시의원, 시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했다.
다만 부실·방만운영으로 생기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까다롭게 한 정부 방침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행자부가 지난 4월부터 적용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 설립 계획단계에서 행자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존 공무원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설립 협의를 할 수 있다.
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운영 안정화를 위한 최적 방안인 것으로 보고 행자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출연기관 설립을 목표로 세웠으며 그 전까지는 직영한다.

트라우마센터는 2012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3년인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지난해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정신보건 시범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이 끊겼다.
시는 지난달 올해 운영비 8억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급한 불을 끄었다. 트라우마센터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국가공권력 피해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관리한다. 개인·집단·가족 상담, 예술 치료, 교육·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이 16일 여수시 시전동 예술마루에서 열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세 번째), 이낙연 전남지사(왼쪽 네 번째), 주철현 여수시장, 이용주 국회의원, 최일 목포대총장 등 참석자들이 정영준 센터장 안내로 성과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수산벤처창업, 웰빙관광, 바이오화학 등 3대 분야 생태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전남도 제공>

상무지구 건축물 용도 크게 바뀐다

조성 20년만에 지구단위 정비 일부지역 용도 강화 반발 우려

광주의 대표적 신도시인 상무 1지구에서 건축물 용도가 크게 바뀐다. 시가 불합리한 건축물 용도 규정을 대폭 수정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규모와 건축물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상무 1지구 지구단위계획은 1998년 고시된 뒤 근 20년만에 정비되는 셈이다.
전체 면적은 261만㎡로 광주시청, 서부교육청, 가정법원 등 공공서와 금융기관 등이 들어선 대표적 신도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상무1구구는 이번 조치에서 중심상업지역을 기존 10곳에서 6곳으로 줄이는 등 단순화했다. 층(層)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같았던 것을 모든 층에 자유롭게 허용했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슈퍼마켓은 1층이나 2층 이상에는 들어설 수 없었다. 다만 광주시청 앞 2개 블록은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입주는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운전로 주변에 의원과 한의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위락시설과 주거시설에서 허용했던 학원도 독서실, 단란주점은 면허분위기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들어설 수 없게 강화했다.
일부 지역은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강화되는 셈이어서 건물이나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함평에 산부인과 생긴다

해남종합병원·함평성심병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선정

해남과 함평에 산부인과가 생긴다. 전남도는 16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3개소 가운데 전남이 분만산부인과 해남종합병원, 외래산부인과 함평성심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남종합병원은 시설 장비비 10억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 함평성심병원은 시설 장비비 1억원과 매년 운영비 2억원을 국비(50%)와 지방비(50%)로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해남종합병원은 분만실, 신생아실을 증축하고, 초음파, 신생아용모니터 등을 보강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간호사 10명을 확보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분만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개설한 공공산후조리원과 연

계해 대도시 못지않은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함평성심병원은 1층과 3층을 개보수해 외래진료실과 상담교육실을 마련하고, 초음파, 태아감시장치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며,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을 채용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외래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안정적 분만 환경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강진의료원, 고흥종합병원, 영광종합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완도대성병원, 진도한국병원, 보성아산병원에 외래산부인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안정적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으로 전남의 함께출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100만 명을 확보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24시간 분만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개설한 공공산후조리원과 연

"전기차 국고보조금 확대해 달라"

광주시, 급속 충전요금 유료화 유보 등 17개 항목 정부에 건의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광주시가 국고보조금 확대 등 전기차 민간보급 활성화 정책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충전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을 빼고는 관련 대책들이 부족하다고 판단, 정부에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확대, 완속 충전기 국고보조금 인상, 급속 충전요금

유료화 전면 유보 등도 함께 요청했다. 건의문은 이 밖에도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고속도로 전용차로 주행 허용, 공동주택 신속 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전기차 이용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광영주차장 등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등 모두 17개 항목을 담았다.
시는 정부가 보급수량을 늘리는 데 급급하고 보조금이나 충전인프라 보급 지원 예산은 삭감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전기차 보급수량은 2014년 1099대, 지난해 2796대, 올해 8000대, 내년 3만 2000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2011년 1700만여원에서 2012~2015년 1500만원으로, 올해는 1200만원으로 줄었다.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2011년 대당 1300여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민간보급 실적에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국은 전기차 1대당 충전기를 포함해 9500달러를 지원하며 노르웨이는 전기차 구매 시 관세, 자동차세, 부가세 면제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 일본도 같은 시기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를 세웠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주도권 확보,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 매진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재난대응 훈련' 우수기관 선정 총리상

전남도가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안전한국훈련은 범국가적 총력 재난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대규모 재난을 가상한 국가재난대비 종합훈련이다.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274개 기관이 동시에 실시한 안전한국훈련에서 전남도는 이순신대교에서 차량전복·추돌 등 복합재난사고를 가정한 민·관·군·경 합동 재난대응훈련을 했다.

전남도는 이번 훈련에서 정부 표준 실무 매뉴얼과 지자체 행동매뉴얼이 없는 여건에서 대형 교량 사고 복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해상교량복합사고 훈련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순신대교 교통 일시 통제에 따른 국도 17호선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운영하고, 관련 업체와 공단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는 한편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 · 수술후 재활 · 암케어병동 · 치매 · 중증 · 집중치료실 · 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 · 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